

# 세종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항 및 제시문

(가)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쫘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나) 내가 “폐하, 서로 다른 많은 종교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레이만 1세는 “그것이 바로 내 제국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대들과 달리 푹푹 멎쳐 있지. 내가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으니 분열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대사! 대사는 나를 도와 우리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오?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 나라에서는 노예를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런 신분으로 생각한다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과 신분이 아니고 바로 능력이라고. …… 그 능력이라는 게, 오직 끝없는 훈련과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소?”라고 답하였다. - 뷔즈벡, 『터키에서의 편지』 -

(중략)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 때 합스부르크 왕국 대사로 오스만 제국에 파견된 뷔즈벡이 남긴 글이다.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교와 풍습을 가진 여러 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출신·종교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다)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는 집현전을 세우고,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비밀리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중략) 조정의 신하들과 사대부들은 이도가 새로이 글자를 만들어 반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

제16회 S# 13 광화문 앞(낮)

해강이 맨 앞에 엮드려 있고 유생들은 뒤에 엮드려 “전하! 문자는 아니되옵니다!” 하며 시위하고 있다. (중략) 컷. 왜도엔 ‘作開言路 達四聰(작개언로 달사총)’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틔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중략)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가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 때 이르러서는 언로를 틔우려 간관을 만들었으나 그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긴 후부터는 언로가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해강** ……

**이도** 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오. (점점 큰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

# 세종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항 및 제시문

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왜곡하고 편 집했던 것이오! 하여 삼봉은 “언로가 더욱 막히었다.” 이리 쓴 것이오! 하여 과인은 ‘작개언로’, 언로를 넓히려, ‘달 사총’,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백성에게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중략)

제17회 S# 15 폐사찰 내 방(낮)

(중략)

**정기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실현시키는 글자다.

**이신적** 그리 대단한 글자입니까? 어떤 글자기예요? 보여 주시지요.

**정기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글자는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한가 늙** (무슨 의미인지 아는 듯 쳐다본다.)

**정기준** 누구든 안다면 역병처럼 변질 수 있는 글자야.

**심중수** (더욱 궁금하고 의아해한다.)

**이신적** (큰 한숨을 쉬며) 아, 예. 좋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글자를 안다고 합시다. 그러다고 그들이 관료가 됩니까?

**심중수** (이번엔 이신적을 쳐다본다.)

**이신적** 성리학의 나라요, 사대부의 나라인 이 조선에서 한자도 아닌 그 글자를 조금 안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말입니다!

**정기준** 이 글자를 배운 자는 한자를 멀리하게 되고, 한자를 멀리하게 되면 성리학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허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몇백 년 뒤에는 모르는 일이지. 한자도, 성리학도, 삼강도, 오륜도 모르는 것들이 관료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뿐인가? 글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깨이게 되고, 깨이게 되면 글을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이신적** (답답해하며) 본원, 대체!

**정기준** (강조하며) 또한! 인간은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렇게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다. 모르겠는가!

**심중수·한가 늙** (놀라서 보는데)

**정기준** 이도는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야! 이도는 지금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려는 것이란 말이 다! 이도가 백성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 왕과 관료들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진다. 백성이 잘못하면 어찌할 것이냐?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 그들을 모두 갈아 치울 것이냐 말이다. (중략) 모든 사람이 글을 쓰는 세상이 오면 사대부는 권력을 잃어. 사대부가 권력을 잃으면 성리학이 조선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리학이 조선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조선이 망한다는 것이다.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의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